

9월의 기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2014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4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DCEM 성회안내

201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CGI대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 강사로 10월 29일, 31일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순복음신안산교회(담임 최영우 목사),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나인규, 문경섭, 박우택,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 목사, 오현주, 이규현, 이은석, 원소선, 정낙숙,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010-2726-****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용서의 힘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인간은 원수에게 복수할 때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용서할 때 원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미국의 성공학자 앤드류 카네기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자. 그것이 현명한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순간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품으면 위장과 심장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신경도 예민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하고 사랑의 띠로 묶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독인 적대감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마음속에 있는 원함과 상처를 십자가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화해가 되지 아니하고, 화해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으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Sept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순복음오사카교회 축복대성회”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뜨겁던 여름의 끝에 추석이 찾아왔다. 명절 전후로 이어지는 연휴는 그 동안 땀 흘려온 많은 이에게 일상의 심포가 될 수도 있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다. 반면, 일본 오사카에서는 뜻 깊은 성회가 열렸다.

9월 8일 순복음오사카교회(담임 정의기 목사)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하여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순복음오사카교회 축복대성회”가 열린 것이다. 순복음오사카교회의 담임 정의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성회에는 연합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 성도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영을 받으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등단하였다. 통역은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가 했다.

조용기 목사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역사하심”에 대

해 순복음오사카교회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었다. 조목사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열두 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본인도, 그녀의 가족들도 모두 병으로 인하여 희망을 잃었다. 하지만,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에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는데, 소망이 생기자 그 여인은 꿈을 꾸게 되었다. 또한 꿈이 생기자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를 것이라는 믿음이었다”라고 전하였다.

조목사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신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고 하였다. 우리가 믿은대로 꿈 꾸는대로 이루어지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과 생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

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목사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라고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삶의 모든 저주와 가난, 질병과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청산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음부로 내려가지 않으며, 천국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설교 후 성회에 참석한 순복음오사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일본의 영혼구원을 위해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일본 일천만구령 운동을 통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하여 오늘도 전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달려나가고 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며, 아무것도 심지 않은 데는 잡초가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에서 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발 터전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듯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인생도 심음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는 무엇으로 심어야 할까요?

1. 말이 인생의 씨앗이다

말은 인생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말로 운명의 씨앗을 우리 주변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창도 바다와 식물,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모두 다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라는 세계를 말로써 변화시키고 창조한다는 것을 알 때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누리는 모든 것은 과거에 내가 말한 것이 씨앗이 되었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애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면 악이 내 주위에 심어지고 열매 맺게 되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하고 착한 열매가 맺도록 씨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합니다.

우리 말이 육체를 따라서 심으면 마귀가 밭아서 그와 더불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심고 거두는 법칙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9절>

키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생명의 말씀을 말하면 성령이 우리의 생명에 축복된 열매를 맺게하는 것입니다.

2. 생각이 꿈을, 꿈이 말을, 말이 환경을 만든다

생각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믿음을 생산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게 되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이 언제나 창조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마음에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내 환경은 3차원이지만 4차원은 그 한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4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영적인 4차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4차원의 세계 속에 우리 자신을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더러운 꿈을 꾸게 되고 더러운 꿈을 믿게 되고, 우리 생활 속에 온갖 부정적인 더러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바를 통해서 자신의 환경과 운명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꿈이, 믿음이, 말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3. 우리가 심는 씨앗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이 출중하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이미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천국, 집안 천국, 사회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4차원의 영성을 따라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이 꿈을 그려 놓으면, 꿈을 바라보고, 바라본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고, 믿음을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무엇을 해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만해도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꿈을 꾸더라도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가져도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말을 해도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합쳐지면 그 엄청난 에너지가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늘 하십시오. ‘나는 영혼이 잘된다. 나는 범사에 잘되고 있다. 나는 강건하다’ 그리고 말로써 원수의 의심을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의심을 가져오면 ‘원수 귀신이 물러가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축복하고 환경을 축복해 놓으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고 환경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소망찬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치 말고 입술로 주장하고 명령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물질적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모두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텃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생각으로, 꿈으로,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심으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심은 것을 오늘날 거두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을 내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므로 우리 모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순복음신안산교회 금요철야예배 통해 “DCEM 헌신예배” 드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름의 무더위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 8월 29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신안산교회(담임 최용우 목사)에서 DCEM 헌신예배가 드려졌다.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된 이날 금요철야예배에는 강사로 초청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내비게이션’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시가끼 장로는 사업가로서 자신이 비즈니스 여행을 떠났을 때 길을 잃었던 에피소드를 성

도들에게 이야기 하며 “우리가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야 하며, 목적지를 정했다더라도 지도를 갖고 있어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시가끼 장로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되신다고 말했다. 우리가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길을 가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길을 잃고 방향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 그는 요즘 인터넷이나 기타 방송매체의 발달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러기 떼의 비행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시가끼 장로는 “기러기는 머나먼 여행을 떠나면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한다. 기러기가 떼 지어 나는 이유는 우선 먼 거리를 가는 데 안전을 생각한 부분이며, V대형으로 날아갈 때 혼자 날 때보다 효율이 훨씬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어느 한 기러기가 총에 맞았거나 아프거나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결에서 날던 동료 기러기 두 마리 이상이 대열에서 이탈해 지친 동료 옆에서 함께 비행을 한다. 그리고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보살핀다. 이 같은 기러기 공동체 의식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시가끼 장로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조용기 원로 목사의 해외사역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여의도순복음신안산교회는 안산복음화에 주력하며 성장해왔으며 지난 7월 최용우 담임목사 취임 이후 더욱 지역 섬김에 힘쓰고 있다. 이날 DCEM 헌신예배를 통해 성도들은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를 이룰 것을 다짐하였다.

17회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원예배

지금은 아시아인들이 일어날 때, 인천을 ‘스포츠 선교 축제’의 장으로



“주여,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시아 스포츠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하소서.” 9월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KBS스포츠월드 제1체육관. 관중석을 가득 채운 크리스천들의 뜨거운 기도소리가 체육관이 떠나갈 듯 울려 퍼졌다.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이날 한국기독교스포츠통연합회(CSCK·대표회장 송용필 목사)가 ‘아시아는 대한민국으로 복음은 아시아로’를 주제로 드린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원예배’에는 전국 각지의 크리스천 4000여명이 참석했다.

CSCK 대표고문인 DCEM 총재 조용기 목

사 “참여하는 선수들이 멋지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더불어 교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크리스천들은 특히 이번 대회가 국제스포츠선교의 장이 되도록 한마음으로 힘써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또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3·1운동과 6·25전쟁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앞장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번 대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 깊은 절망에 빠진 민족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45개 참가국 등 아시아의 선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북한 선수단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시간도 가졌다. 예배 말미에 참석자들은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함께 날리고, 한국교회 공식응원가인 ‘미션코리아’를 힘차게 합창했다.